

## 일본 덴소, 출자부품사 한국와이퍼 폐업 순서 밝나?

### 덴소 흥성 폐업 후 비정규직 협력업체 전환 ... 노동자 309명 생존 위기, “저지 위해 싸운다”

세계 2위 부품사인 일본의 덴소 자본이 한국 노동자의 고용을 흔들고 있다.

덴소가 세운 한국와이퍼블레이드는 2018년부터 신차에 들어가는 OE(Original Equipment) 물량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은 덴소가 안산에 있는 정규직 공장을 비정규직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순서를 밟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는 9월 11일 ‘일방적 사업정리 덴소 자본 규탄, 한국와이퍼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한국에서 연 매출 8천억 원을 올리는 덴소 자본이 한국와이퍼 노동자 309명의 삶을 내팽개치려 한다”라며 “덴소가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투쟁으로 막겠다”라고 결의했다.

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이날 투쟁선포식을 ‘공장 앞’이 아닌 ‘공장 안’에서 열었다. 분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조치로 집회 인원을 제한받는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했다.

조합원들은 안산공장 1층부터 3층까지 분산해 모였다. 각 층마다 연결한 스피커에서 투쟁 구호와 노동가요가 힘차게 울렸다. 조합원들은 매일 자신이 일하는 작업대 앞에서 고용안정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정현철 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장은 덴소



자본이 한국와이퍼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폭로했다.

정현철 지회장은 이날 투쟁선포식대회에서 “물량감소는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덴소 자본은 폐업 후 100% 비정규직 공장을 다시 만들 계획이다. 이에이치이공장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덴소는 2018년 7월 덴소오토모티브 흥성공장을 폐업하고, 다음 달 8월에 (주)EHE라는 협력업체를 만들어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분회는 ‘협력업체’는 덴소 자본의 눈속임일뿐, 비정규직·무노조 공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 “덴소코리아, 18일까지 삼자대면 여부 밝혀라”

정현철 지회장은 “한국와이퍼의 물량감소 사태는 일본 덴소 자본이 기획하고 현대자동차 묵인 아래 벌이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최윤미 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경과보고에서 분회는 상반기 조합원 총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신차수주권을 가진 덴소코리아를

고용안정 투쟁 대상으로 명확하게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지난 교섭에서 분회는 한국와이퍼 사측, 덴소코리아 3자가 고용안정을 주제로 만나자고 제안했다”라고 밝히며 “덴소코리아는 9월 18일까지 대답하라”라고 경고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만든 덴소코리아 계열사다. 덴소는 한국와이퍼에 자본 100%를 출자했다. 덴소코리아 화성공장은 와이퍼 핵심 부품인 모터롤, 한국와이퍼는 와이퍼 브레이드와 암을, 협력사인 (주)EHE는 와이퍼 링게이지를 생산한다. 한국와이퍼는 이 부품을 조립해 덴소코리아를 통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한다.

한국와이퍼는 2018년부터 신차 와이퍼 수주를 받지 않고 있다. 사측은 “현대차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독일 보쉬 그룹이 만든 경쟁사인 KB와이퍼시스템의 출혈 경쟁 때문에 신차수주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변명한다. 수주를 받으면 적자라고 주장한다.

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핵심 부품인 모터를 생산하는 덴소코리아가 2년 전부터 와이퍼 사업 정리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한국와이퍼분회는 “휴일과 명절 휴무를 반납하며 뼈 빠지게 일한 노동자만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다. 정규직 공장을 비정규직 공장으로 전환해 더 많은 이윤을 쥐어짜려는 외국 자본의 횡포를 투쟁으로 막아내겠다”라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 “문재인 정권은 금속노조파괴법 포기하라”

금속노조파괴법·구조조정 저지 완성차 3사 집중선전전 시작 ... “절박한 심정으로 개약에 맞서야 한다”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빼앗는 문재인 정권의 노조법 개약 시도에 맞서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비상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 등을 결정하고, 실천에 나섰다. 노조는 첫 선전전을 9월 10일 오후 조합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현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정문 앞에서 벌였다.

이날 선전전에 김호규 노조 위원장, 권수정·양기창 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과 사무처, 정옥현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부의장 등 조합원, 차덕현 전북지부장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그린푸드지회, 에이에스에이지회 조합원 등이 참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선전전 인사말에서 “밀집해서 일하는 제조업 공장은 코로나 19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사업장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본 요구에 맞춰 공장을 멈추지 않는 ‘2.5단계’라는 방역 대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 “금속노조는 코로나 19 방역 3단계 발령 시 유급휴무·재택근무 조치를 자본과 정부에 요구하기로 비상투본에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



권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핑계로 단협 유효 기간 3년 연장, 공장 일부·전부 점거 금지, 사용자의 효율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약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벌써 21대 첫 정기국회를 시작했다. 179석의 민주당이 언제 노조할 권리를 뿌리째 없애는 노동법 개약을 시도할지 모른다”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미래세대가 온전하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금속노조가 싸워야 한다. 공장을 넘어 전체 노동자가 노동법 개약에 맞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정옥현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부의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전북지역에 투쟁사업장이 늘고 있다. 노조의 힘은 단결과 연대에서 나온다. 코로나 19로 연대

가 어려워 갑갑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정옥현 부의장은 “현대차지부는 교섭이 한창이다. 현대차 담당 밖에서는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는 사업장의 동지들이 있다”라며 “스마트폰에서 보는 기사 한 줄, 지침 한 줄이라도 주변의 조합원과 공유하자. 이런 관심이 결정적인 시기에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할 역량을 만든다”라고 강조했다.

정옥현 부의장은 “금속노동자들이 현대차 전주위원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금속노조가 지침을 내리면 언제든지 조직의 결정을 집행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위원회, 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 현대자동차 아산위원회 등에서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